



'다윗 임금을 책망하는 나탄 예언자'

2023년 대림판공문제집

# 부서지고 꺾인 마음

(시편 51,19)

대림 제1주간 | 재림

대림 제2주간 | 회개

대림 제3주간 | 겸손

대림 제4주간 | 순명

수원교구 복음화국

2023년 대림판공문제집  
부서지고 꺾인 마음  
(시편 51,19)

## 인사말

교구 복음화국에서는 대림 시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 대림판공문제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문제집의 제목은 『부서지고 꺾인 마음』(시편 51,19)이라 정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 세바를 취했을 때, 나탄 예언자는 다윗에게 하느님의 징벌을 예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부서지고 꺾인 마음으로 하느님께 호소하며 용서를 청했고, 마침내 하느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주십니다. 이처럼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시편 51,19).’ 여기서 부서지고 꺾인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선뜻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초라해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어 마음이 한없이 부서지고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느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면 마음이 부서지고 꺾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계획하고 꿈꿔왔던 인간적인 삶의 모습조차 송두리째 틀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느님께서 이를 넘어서는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렇듯 부서지고 꺾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라는 성경 말씀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번 판공 문제집은 대림 시기 주일 복음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림 제1주간에는 재림, 제2주간에는 회개, 제3주간에는 겸손, 제4주간에는 순명에 대해 묵상해 볼 것입니다. 나부터 부서지고 꺾인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수 있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루카 21,28)”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부서지고 꺾인 마음에 새 영을 넣어주시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며, 새로운 영을 받은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대림판공문제집  
부서지고 꺾인 마음  
(시편 51,19)

## CONTENTS

### 인사말

#### 대림 제1주간 | 재림

- 02 복음 말씀 | 마르 13,33-37
- 03 말씀 나누기
- 04 판공 문제

#### 대림 제2주간 | 회개

- 06 복음 말씀 | 마르 1,1-8
- 07 말씀 나누기
- 08 판공 문제

#### 대림 제3주간 | 겸손

- 10 복음 말씀 | 요한 1,6-8.19-28
- 11 말씀 나누기
- 12 판공 문제

#### 대림 제4주간 | 순명

- 14 복음 말씀 | 루카 1,26-38
- 15 말씀 나누기
- 16 판공 문제

2023년  
대림 제1주간  
2023.12.3

# 재림



복음 말씀  
마르 13,33-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3**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35**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6**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 말씀 나누기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종들과 문지기에게 각각 임무를 맡겼는데,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집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집주인이 돌아올 때 잠들어 있는 종들을 깨우고, 가장 먼저 주인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지와 종은 우리 자신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돌아올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는 의미보다는, 애초에 집주인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즉 방종하게 살다가 갑자기 일하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쁜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행동은 억지로나마 갑자기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마음만은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행실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이 따르지 못하면 마지못해서 할 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사람만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 속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Q1** 다음은 오늘 복음의 전문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넣으십시오.

“너희는 조심하고 ( )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 )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 )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 ) 있어라(마르 13,33-37).”

**Q2**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집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Q3**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올 그날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악의 승리
- ② 구원
- ③ 심판
- ④ 종말

**Q4** 오늘 복음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부족한 인간이지만, 관상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
-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자비로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한 악인들까지도 모두 구원하실 것이다.
- 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구원받을 인간과 멸망할 인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
- 4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유보되어 있으나,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Q5**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마음 내키는 일에만 열중한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 3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순간의 쾌락을 찾아다니며 삶을 즐겨야 한다.
- 4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테니, 가족과 일터를 버리고 홀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023년  
대림 제2주간  
2023.12.10

# 회개



복음 말씀

마르 1,1-8

1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말씀 나누기

---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고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성령의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단순히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다짐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전인격적인 차원으로 옮겨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 '있는 나(탈출 3,14)'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Q1** 오늘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소박한 생활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요한은 ( ) 털 옷을 입고 허리에 ( )를 둘렀으며, ( )와 ( )을 먹고 살았다(마르 1,6).

\_\_\_\_\_ , \_\_\_\_\_ , \_\_\_\_\_

**Q2** 오늘 복음의 “내 사자(마르 1,2)”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마르 1,3)”가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_\_\_\_\_

**Q3**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군중에게 세례를 준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Q4** 오늘 복음에 언급되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죄의 용서라는 동등한 효과를 지닌다.
- ②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모두 받으면 죄 없는 천사처럼 되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진다.
- ③ 요한이 주는 물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초대하여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 ④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따로 선별된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다.

**Q5** 요한이 주는 물의 세례가 요청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내 욕심대로만 살았던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 ②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가 의미 없음을 받아들인다.
- ③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모른 채 하고, 본당 활동에만 전념한다.
- ④ 이웃과의 관계를 끊고, 오로지 기도와 단식에만 전념한다.

2023년  
대림 제3주간  
2023.12.17

# 검 손



복음 말씀

요한 1,6-8.19-28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19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20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2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23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24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26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기에다 합당하지 않다.”

28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 말씀 나누기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요한에게 혹시 엘리야인지, 아니면 그 예언자인지 묻자 요한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도 요한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곧게 낼 수 있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요도 합당치 않다고 말하며 겸손되이 자신을 낮출 뿐입니다. 한낱 소리에 불과한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요한 14,24)”을 하시고, 당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참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말만 하며 자신을 높이는 일은 없는지도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Q1** 오늘 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당신이 ( )도 아니고 ( )도 아니고 ( )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요한 1,25)?”

\_\_\_\_\_ , \_\_\_\_\_

**Q2**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나는 ( )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 )을 풀어 드리기에요도 합당하지 않다(요한 1,26-27).”

\_\_\_\_\_ , \_\_\_\_\_

**Q3**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어느 예언자의 예언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원과 소명을 밝힙니다(요한 1,23 참조). 이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_\_\_\_\_

**Q4** 다음은 오늘 복음의 발췌문입니다. ㉠, ㉡은 각각 누구를 의미합니까?

㉠ 그 사람은 ㉡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요한 1,8).

- | ㉠         | ㉡       |
|-----------|---------|
| ① 예수 그리스도 | 세례자 요한  |
| ② 레위인     | 세례자 요한  |
| ③ 세례자 요한  | 예수 그리스도 |
| ④ 바리사이    | 엘리아     |

**Q5** 자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겸손의 표양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정중히 거절한다.
- ②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한다.
- ③ 작은 실수 하나에도 끊임없이 자책하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 ④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늘 남의 눈치를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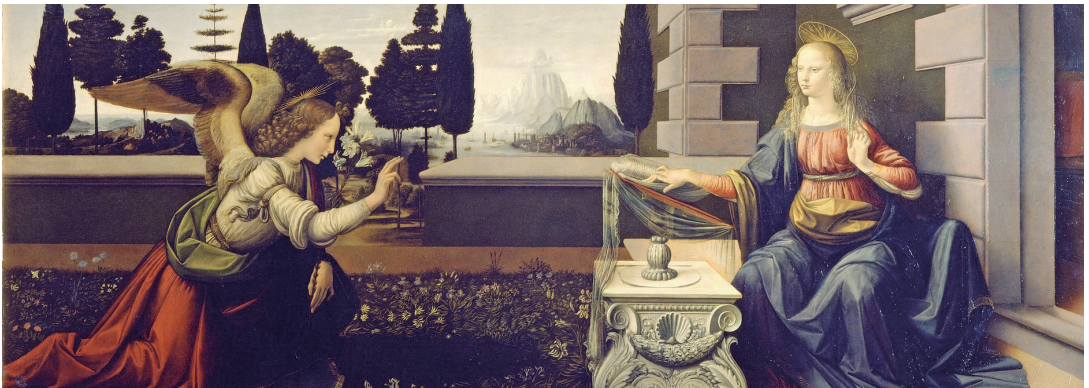
2023년  
대림 제4주간  
2023.12.24

# 순명



## 복음 말씀 루카 1,26-38

그때에 26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27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29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31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33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 말씀 나누기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되리라는 예고를 듣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몹시 놀랐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곧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를 듣고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결단을 내릴 때까지 적잖은 고뇌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에 너무나도 당연했고, 충분히 돌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마리아의 결단이 무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뜻에 동의하는 순간, 자신이 상상했던 삶의 모습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삶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받아들일 줄 알았던 마리아의 모습이 그리스도교적 현실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Q1** 오늘 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인사를 건넵니다.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 )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 )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

**Q2** 오늘 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 )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 )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루카 1,32-33).”

,

**Q3**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자는 누구입니까?

- 1 다윗 집안의 후손이자 나자렛 고을의 목수 요셉
- 2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
- 3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
- 4 요셉 바르사바스

**Q4** 오늘 복음에 드러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모두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 ②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잉태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다.
- ③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잉태는 온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낸다.
- ④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모두 동정녀로서 아들을 잉태하였다.

**Q5**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다음 중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명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교회법과 십계명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인으로서의 당당함을 과시한다.
- ②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한다.
- ③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아픔이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다.
- ④ 교회가 부패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계 제도를 떠나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2023년 대림판공문제집

## 부서지고 꺾인 마음(시편 51,19)

발행일 2023년 10월 19일  
발행인 이용훈  
편집인 이승환  
발행처 수원교구 복음화국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정자동 578)  
편 집 수원교구 사목연구소  
전 화 031-458-4327  
F A X 031-458-7224  
E-mail pastor@casuwon.or.kr

디자인·인쇄 하상출판사  
전 화 031-243-1880(대)

성명(세례명)

전화번호

본당

구역·반

※ 본 출판물에 대한 사항은 수원교구 복음화국으로 사전 문의 바람이며 모든 내용의 임의 변경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이 책의 본문용지는 수원교구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봉헌”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